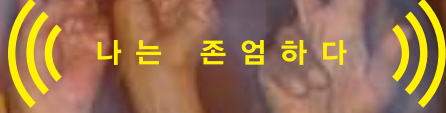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인권증진 = 빈곤감소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가 굳이 전세계 빈곤에 대한 여러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이와 관련한 많은 수치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빈곤퇴치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반드시 국제앰네스티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미 많은 계획들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최소 9억 6300만 명이 매일 밤 주린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든다는 사실,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슬럼에 살고 임신 합병증으로 1분에 한 명의 산모가 죽어간다는 사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13억 명에 이르고 25억 명이 제대로 된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며, 그 결과 하루에 2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떤 계획이 추진되건,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건, 어떤 종합원조정책이 합의되건, 그 중심에 인권이 없다면 빈곤 해결책은 장기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해결책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빈곤한 사람들은 권리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배제되고 의견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불안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인권은 그러한 상태의 해결에 있어 핵심요소이다. 인권존중이란 포용뿐 아니라 빈곤한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권력층이 이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이 완전히 존중되려면 존엄하게 살 권리와 식량, 물, 기본적인 의료, 교육과 주거의 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국제법과 국제기준들의 본문에 성문화되어 있는 이러한 요구들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빈곤을 지속시키는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게 한다.

개발의 중심에 인권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에도 들어봤을 것이다. 개발과 인권의 관계를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만 인권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는 이는 드물다. 많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계자들에게 인권은 서류 상의 단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된 사업들은 빈곤한 사람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경제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행해지며,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

의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경제성장을 성공적이라 여긴다.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계획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사람들을 빈곤으로 내몰고 이를 영속시키는 근본 폐해들을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천년개발목표에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해결책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서는 민족 및 종교적 소수, 선주민, 여성과 소녀들이 전세계 빈곤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국 정부가 빈곤이 어떻게 여러 집단에 영향을 끼쳤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빈곤을 고착시키고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여러 인권침해의 종식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할 장치도 없다. 정부들은 너무나 자주 향후 증진시킬 권리들을 취사선택한다. 어떤

표지: 보팔 주민들이 1984년 가스참사의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발표에 환호하고 있다. 2004. 7. 인도.

좌측: 간호 조산원인 파드마바티 사말(Padmabati Samal)이 인도 오리사 주의 칸키라(Khankira) 마을에 사는 사일라발라 사말(Sailabala Samal)의 태아 심장박동을 체크하고 있다. 그녀는 2년 간의 교육을 받고 임신부의 산전 및 산후조리를 관리하지만, 분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오리사의 많은 여성들은 전문적인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이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한다. 다른 정부들은 '안정'이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며 보건과 교육 투자가 핵심적이라고 주장하며 자유를 억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0년간 인권에 대한 조사와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 동안은 억압과 고문, 학살에 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에는 모든 인권의 실현을 위해 활동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인권의 불가분성을 확인했다. 공포와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빈곤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은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또 다른 인권침해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 우리는 인권침해가 빈곤을 유발하고 지속시킴을 알고 있다. 그리고 빈곤이 그러한 인권침해로 다시 직결됨도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존엄하며 평등하다. 이것이 바로 국제인권 규범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회와 기본 생활수준을 비롯해 동일한 수준의 안전과 자원,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전세계의 유일한 인권체제이다.

**모두를 위한 권리 요구.
존엄성을 요구하자.**

빈곤한 사람들이 전하는 경험

빈곤한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말할 때, 궁핍함이 주요하기는 하지만 단지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루살이에 필요한 돈이 1달러인지 1.25 달러인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학교가 자신들의 집과 더불어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철거될 지에 대해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빈곤은 폭력의 공포 속에서 사는 것,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주류'사회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내려지는 결정으로부터도 배제되는 것,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의적 체포나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자원을 채취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순간적 결정에 빠듯한 생계수단마저 잃어버리는 것 또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법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빈곤이라고 말한다.

소득이나 지출 수준의 관점에서 빈곤을 바라보면, 단지 이러한 수준이 높아지면 빈곤이 해결된다고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빈곤한 사람들은 '박탈', '불안', '배제', '무시'라는 4가지 핵심요소가 그들의 일상에서 상호작용하고, 이것이 권력층으로 하여금 빈곤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한다고 말한다.

불안

빈곤한 사람들의 경우, 개인과 가족의 안전에 매일 위협을 느낀다. 집과 직업 그리고 생계는 불안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질병이나 흉작, 실직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보호를 약속하는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빈곤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고용되거나 고용관계 내에서 어떤 권한을 갖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그것을 남용할 때의 의

지할 수단이 전혀 없다. 집주인에 휘둘리는 세입자, 개발업자에 의해 퇴거 당하는 마을주민, 가족들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바로 그들이다.

빈곤한 사람들은 또한 분쟁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분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가장과 생계부양자를 잃거나 무장 단체가 아이를 납치한 경우 가난한 사람들의 위태로운 삶은 더욱 위험해질 뿐이다. 그들은 또한 폭력 범죄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빈곤한 여성들은 폭력에 더욱 취약하며 부유층과 권력층에 주어지는 법과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폭력은 일과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의 조직을 통해 그들의 운명을 개선하려는 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된다.

배제

빈곤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바로 그 기관으로부터 거부 당하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법원, 경찰, 복지기구, 시의회, 공공서비스, 교육위원회 등은 분명 모든 시민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지만 빈곤한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무관심으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리고 빈곤한 여성이라면 가족과 사회의 의사결정과정과 권한에서 모두 배제되는 이중적 구속을 겪는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대개 차별로 야기되는 배제는 부유한 국가에서의 빈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국 도시 내 흑인사회, 또는 유럽전역의 로마족(집시)사회의 생활수준은 대다수 국민에 훨씬 못 미친다. 일부의 경우, 당국이 일부러 로마족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 다니도록 하거나 아예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몇몇 정부는 경찰과 법원의 불평등한 대우를 허용하는 정책의

사례연구: 짐바브웨

2008년 말, 노후한 위생체계와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야기된 콜레라는 짐바브웨 전역을 휩쓸었고, 나라의 부실한 보건상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당시 공급부족, 낙후한 기반시설, 장비고장과 인재유출로 이미 마비된 보건체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짐바브웨의 주요 위탁병원들만이 겨우 돌아가고 있었고 일부 병동은 이미 문을 닫았다. 많은 지역병원과 시의 진료소들도 문을 닫았거나 최소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라레(Harare)의 공립 병원에서는 월 3,000명의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그 중 최대 10%가 제왕절개 수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하라레 광역시의 정부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두곳이 문을 닫았고 다른 병원에서도 산부인과 진료가 중단되었다. 부유하지 못한 여성들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지 못했다 반면 부유층은 민간의료원에 다니며 진료를 받거나 지불했다. 중무장한 전투경찰이 의료종사자단체가 보건 아동복지부에 청원을 제출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그 의료진들은 정부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비용 보건체계 회복을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대신, 그들은 파리레냐트와(Parirenyatwa) 병원 부지 내에서만 시위를 하도록 강요 받았다. 4시간 후, 경찰이 병원에 진입해 그들을 강제로 해산시켰고 그 과정에서 몇몇 의료진이 폭행당하였다.

몇 달이 지난 2009년 2월, 무가베 대통령은 85kg이나 되는 케이크로 자신의 생일을 축하했다. 그 며칠 전 짐바브웨는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에 20억 달러의 원조를 요청했다. 무가베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의 생일 파티를 위해 25만 달러를 모금했다.

박탈과 불안 속에 살고 기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배신당하고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 그리고 정책결정에서 배제되고 목소리를 내려 하면 무시되거나 심한 경우 폭력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빈곤이다.

브라질 최대 슬럼인 로치나(Rocinha)에서 순찰 중인 경찰 옆으로 아이를 안고 걸어가는 여인.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 2005. 10.

무관심하다. 부유한 사람들과 빈곤한 사람들 사이의 산모사망률 격차(아래 참조)는 이러한 차별과 배제와의 연관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8년 6월, 유엔 빈곤계층법적권한강화 위원회는 세계인구의 과반수인 40억 명의 사람들이 사법체계로부터 배제되어 있다고 밝혔다. 저개발국에 사는 아이들의 약 71%정도가 5세가 되도록 국가에 등록되지 않으며, 심지어 출생증명서도 없이 살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보건과 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적 행위자로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시

배제는 또 다른 빈곤의 조건과 긴밀히 연결된다. 즉 권력층에 의한 무시이다. 빈곤한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조직화를 위한 그들의 노력은 억압되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는 차단되며 협의 과정은 조작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

의도적인 묵살이든, 무관심으로 인한 무시이건, 결국 빈곤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같다. 가장 압제가 심한 국가들 가운데 최빈국이 속해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국가에서도 빈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출발점

향후 최소 6년 간, 국제엠네스티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사와 캠페인, 권한강화 활동에 착수할 것이다. 국제엠네스티는 인권침해에 대한 엄격하고 불편부당한 조사와 정부와 유엔에 대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개선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책무성을 요구하며 지난 50년 동안 성공적인 로비활동을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권력의 균형이 빈곤한 사람들에게로 이동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제엠네스티의 임무는 빈곤이 세계 최대의 인권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에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흑인 여성의 산모사망률이 백인 여성보다 세 배나 높다. 미국 내 4,6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 비용 때문에 진료소를 찾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흔하다.

여성에게 생명권이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연인관계나 가족 안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빈곤, 부당함, 무력함으로 인해 사망한다. 이들은 제도적 차별에 직면하고, 이러한 차별은 가정에서 똑같이 자행된다. 여성과 소녀들은 가족에 의해 강제 혹은 조기 결혼을 하며, 일단 결혼하고 나면 마치 하인처럼 취급 받고 충분한 음식도 먹지 못하며, 집에만 갇혀 지내면서 금전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여성들은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에도,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에 있어 경제·문화·사회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에게는 임신 시기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피임할 수 없거나 그들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출산 중 산모가 사망하면 그 가족은 더욱 가난하게 된다. 생계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무임금 노동 그리고 아이 양육 및 교육을 맡아온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슬럼

전 세계적으로 20만 개가 넘는 지역을 빈민가로 정의할 수 있다. 비동빌(bidonvilles), 게토(ghettos), 후드(the hood), 인도의 버스티(bustess) 또는 차울(chawls), 브라질의 파벨라(favelas), 콜롬비아의 바리오스 포풀라레스(barrios populares), 그리고 비공식 정착촌(informal settlements) 또는 단순히 슬럼(slums) 등으로 일컬어지는 이들 지역에는 전세계 10억 명이

처음에는 국제앰네스티가 경험을 추적해왔고 활동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권침해의 주요영역과 양상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곳에서는 박탈과 불안, 배제와 무시의 복합작용이 분명히 나타난다. 국제앰네스티의 전체적인 목표는 빈곤을 영속시키는 인권 침해를 끝내는 것이다.

산모 사망

매년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50여 만 명의 여성의 거의 대부분이 제 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다. 필수 산부인과 진료

와 피임과 같은 의료서비스 비용은 빈곤한 여성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다. 빈곤한 사람들이나 오지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의료 시설에 가는 것조차 힘든데 교통비가 없거나 의료시설까지 가는 길이 없는 경우도 있다. 빈곤한 여성과 소녀들은 이러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다. 특히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문맹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출산 중 사망하는 여성이나 소녀의 대다수인 약 95% 이상이 저개발국가에 살고 있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에서 출산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수천 건에 이른다. 이러한 사망자 수의 대부분은 불균형적으로 소외계층이나 빈곤한 지역

상의 사람들이 거주한다. 이러한 지역의 공통점은 주거와 위생 및 배수시설이 열악하며, 수도 및 전기 서비스는 취약하거나 미비하고, 인구밀도와 폭력 발생률이 높다. 이러한 지역의 상당수는 "불법" 또는 "미등록"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무엇보다 거주민들의 임차권이 매우 불안정하여 강제퇴거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보상을 청구할 권한도 없다.

전세계의 슬럼 인구는 우려할 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30년경에 20억 명이 슬럼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낙후된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

슬럼주민들은 자원과 자산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들은 또한 경찰과 범죄조직의 지속적인 폭력 위협과 사전 경고도 없는 강제퇴거의 위협 때문에 높은 수준의 불안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안전한 물, 위생시설, 보건과 교육 같은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된다.

빈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차별 받기 때문에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결정에 있어 슬럼주민들의 의견은 늘 무시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거 개선이나 강제퇴거 후 대체할 주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참여 할 수 없다.

이는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유럽도시 주변지역, 미국의 빈민가, 캐나다와 호주의 선주민 거주지역에서도 지역사회 전체에 박탈과 배제라는 비슷한 문제가 존재한다.

슬럼지역의 여성은 특히 취약하다. 브라질 여성은 가정폭력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을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위생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여성들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하거나 또는 남의 눈길을 피하

니제르 델타의 석유탐사로 인한 가스불꽃, 2008. 2. 니제르 델타의 석유산업은 많은 이들을 빈곤으로 내몰았다.

기 위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성폭력과 성추행의 위험이 높다.

기업의 책무성

기업의 여러 사업들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성공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들은 국가의 세수를 늘리고 이는 다시 기본 서비스 및 기타 정책들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국가의 부패나 규제 시스템의 취약 혹은 부재를 악용하여 너무도 자주 인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그 침해의 피해자들은 그러한 기업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전혀 없다.

특히 자원 채취산업의 경우,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비롯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평가 없이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토양오염과 수자원 오염으로 인해 전통적인 생계수단과 삶이 파괴되거나 위협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들이 그들의 자산을 보호하려 하면서 분쟁과 폭력은 고조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기업과 정부가 결탁해 폭력, 협박 또는 나쁜 여론을 줄이기 위한 언론금지명령을 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평화적인 우려의 표명이나 정의의 요구를 차단한다.

이러한 불안과 박탈은 피해지역 공동체들이 기업활동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자신들



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여 배제될 때 더욱 심각해진다. 아울러 이들 지역 공동체들이 사법제도에 접근할 수 없고, 정부들이 초기에 작성한 합의에 인권보호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포괄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개발도상국에서 빈곤한 사람들은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나 피해의 직접적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이러한 피해와 관행으로 주주들은 부유해지는 반면, 허술한 국내규제와 비효율적 시행, 기업에 대한 이중 잣대, 효과적인 국제 또는 역외 감독과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는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선주민들은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며 효과적인



사례연구: 튀니지

2008년 상반기, 튀니지 남동부의 가프사(Gafsa)지역의 대기업인 가프사 인산염 회사(Gafsa Phosphate Company)가 발표한 채용결과는 집단적인 시위를 촉발시켰다. 채용되지 못한 일부 노동자들은 이 결과가 사기라고 주장했다. 튀니지 노동조합(UGTT)을 포함한 다른 이들이 시위에 동참했고, 이 시위는 높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 표출로 확대되었다.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자, 정부는 대규모 경찰과 보안군을 동원하였다.

불안 주동, "공공 및 민간 자산을 파괴할 목적으로 범죄 단체 조직" 그리고 "공무 수행중인 공직자들에 대한 무장 저항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8년 12월, 이들 대부분은 불공정 재판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2월, 유죄판결이 인정되었다.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1심 판결에서 석방되었던 5명이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38명이 사회

국제앰네스티는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을 양심수로 보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 끊기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빈곤퇴치 방식은 일시적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 현재의 세계 경제위기는 단지 경제 성장만을 기반한 혜택이 얼마나 취약한 지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빈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요구하고 스스로 자력화하여 운명의 피해자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항상 개인들이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옹호해 왔다. 양심수 석방 캠페인을 할 때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세계는 말하고, 요구하며, 행동하는 공간이 빈곤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도록 보장하는 전제조건임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된다면 국제앰네스티는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각국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빈곤한 사람들이 그 굴레를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가능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가 빈곤을 야기하고 영속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빈곤은 다시 그러한 침해와 직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각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거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전역의 최빈국들은 이 지역의 빈곤한 사람들에게 치명타가 될 투자, 교역, 원조의 감소에 직면해있다. 부유한 국가에 대한 수출수요 감소와 외국인 투자 감소는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의 둔화를 의미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2008년의 식량, 연료, 금융 위기로 인해 최소 1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빈곤한 사람들의 삶을 세계 경제의 호황과 불황에 맡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경제성장은 빈곤해소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제책이 있을 확률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세계 자원 부국들 중 다수는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최빈국이기도 하다. 세계은행은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25개국 중 12개국을,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6개국을 인간개발통계 세계 최저이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빈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높은 수준의 빈곤이 공존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인다. 채취산업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주장하듯 천연자원 채취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감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채취 활동은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사항

슬럼 거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슬럼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신 중 합병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망을 예방하며 기업이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에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전세계 지도자들이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갈 때 빈곤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목표와 수단에 집중하는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 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전통적으로 진전뿐 아니라 좋은 취지까지도 저해해온 세 가지 기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빈곤 없는 미래는 다음과 같다.

책무성

- 국가 개인 뿐만 아니라 다자간 기구와 기업을 포함해 국내 및 국제적 행위자들이 저지른 빈곤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어떤 국가도 부패와 무관심 또는 직접적인 폭력을 통해 국가의 통제 아래 국민의 권리를 저해할 수 없다.
- 인권 의무는 존중되며 국경을 초월해 실현된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적법하게 시행된다.

권리에 대한 접근

- 공공서비스와 보상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가로막는 차별적 법률, 정책, 관행이 성공적으로 이의제기되며 변화된다.
- 자원과 서비스, 사법체계를 이용하려 할 때 빈곤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핵심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이행된다.
- 새년개발목표를 포함한 국가 및 국제적 빈곤퇴치와 개발 과정은 그 원인에 대한 인권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해결책은 인권을 중심으로 찾는다.

활발한 참여

- 국제적으로, 주요한 개발과 빈곤 퇴치과정 뿐 아니라 행위자들은 빈곤한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와 참여제도를 이행한다.
- 국내적으로, 인권 옹호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의 활동공간이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시위의 자유 권리가 보장된다.
- 빈곤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참여 수단이 주어 진다.

www.amnesty.or.kr/dignity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전세계 150여 개국 220만 명 회원이 인권 보호를 위해 캠페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 = 빈곤감소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 특별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www.amnesty.or.kr

원문 언어: 영어
원문 발행: 2009년 5월
번역본 발행: 2010년 9월
문서번호:
ACT35/003/2009